

아동·가족복지학 전공교재의 ‘입양가족’에 대한 내용분석*

- 입양가족의 고정관념과 편견적 서술을 중심으로 -

A Content Analysis of the ‘Adopted Family’ of Major Textbooks in Child and Family Welfare Studies:
With Focus on the Stereotypes of and Prejudiced Descriptions about Adoptive Families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
박 사 배 지 연**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 교 수 이 선 형***

Dept. of Social Welfare, Daejeon University
Ph.D. Bae, Jiyeon
Dept. of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Lee, Sunhy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가족복지학 전공교재 내에서 ‘입양’과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적 서술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출간된 아동가족학 전공교재 11권을 표집하여, 집필의 구성과 기술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입양 및 입양가족에 대한 내용에 있어, 최근 변화된 공개입양문화의 특성과 당사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양가족(부모, 아동)과 입양기관 등에 대한 특성 기술에 있어, 일부 편견적 용어의 사용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근 공개입양문화의 양적·질적인 이해와 입양가족의 사회적 편견에 대한 관점 등을 반영하여 입양가족의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학 뿐 만 아니라 가족복지, 건강가정론 등에서 다양한 가족의 유형으로써 입양에 대한 내용을 전공 서적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가족복지학 전공교재의 주제 구성과 내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내용 구성의 개편 등 교재 집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아동·가족복지학, 전공교재, 입양가족, 내용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prejudiced descriptions of adoption and adoptive families in the major textbooks in the field of child and family welfare studie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compositions and contents of eleven different textbooks and found four necessary changes to recommend: first, we found it essential for authors to ha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n adoption culture and adoptive families.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9419).

**주저자: 배지연(jybae413@daum.net), <https://orcid.org/0000-0001-7973-1954>

***교신저자: 이선형(yisunh@hoseo.edu), <https://orcid.org/0000-0001-7938-3996>

Second, we observed the need for the revision of prejudiced terminology found in textbooks' descriptions of adoptive families - about adopters, adoptees, and adoption institutions. Third, we advise an enhancement in the understanding of adoptive families reflecting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understandings of the open adoption culture and perspective about social prejudice against adoptive families. Finally, we advocate for the inclusion adoptive families as one of the diverse forms a family can take, not only in the curriculum of child (children's rights) studies but also in the curricula of other family-related disciplines such as family welfare and healthy family theory. Based on these four changes, we propose a new approach to authoring including a multifaceted review of the subject composition and the content of the major textbooks and revision of the overall contents of the textbooks.

Key words: child and family welfare studies, major textbooks, adoptive families, content analysis

I. 서론

입양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 주고,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한국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입양가족은 입양부모와 입양인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되며, 개인적인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의 적응을 통해 아동에게 양육과 성장의 환경을 제공하며, 제도적 측면에서는 공적제도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한국은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2012년)과 공개입양문화 확산으로 입양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입양에 대한 이해와 인식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령, 입양부모들이 흔하게 경험하는 주위의 반응 중 하나는 '입양부모는' 입양을 한 대단한 사람이다'라거나, '입양은 남의 자식을 키우는 일이다', '입양아동은 불쌍한 아이다'라는 것이다(신정훈, 2015). 또한 일반인들에게 입양은 주로 난임(불임) 가정에서 한다는 인식이 많으며, 언론에서 접하는 입양도 '출생의 비밀' 등 자극적인 드라마의 소재로 다루어지거나(정은주, 2021b) 때로는 해외 입양(인)의 부정적 사례가 비춰지는 등 일상적인 입양가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인 편이다.

이에 따라 배운진(2017)은 초등 교사와 또래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입양아동과 부모가 겪는 학교생활 속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양을 특별하게 다루거나, 입양이 '다름'으로 인식되는 편견적 관점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가족에 대한 기초 인식을 갖게 되는 초등 교과서에서의 입양도 출산한 가정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적 관점에 대한 접근은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 등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현재 정부와 민간기관, 언론, 입양 당사자들은 여러 입양인

식개선 활동을 통해 입양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가령, 한국입양홍보회에서는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명존중, 가족의 소중함, 입양의 편견을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입양당사자인 가족과 아동들의 부정적 경험과 정서는 입양문화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입양부모들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거나 타인의 입양에 대한 평가와 반응으로 위축되기도 한다는 것을 밝혔고, 때로는 이로 인해 추가적 입양계획을 철회하거나 혹은 공개입양에서 비밀 입양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배운진 외, 2016; 신정훈, 2015; 이선형·임춘희·배지연, 2021).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편견(이중잣대)에 대한 경험들은 궁극적으로 국내 공개입양문화를 위축시키고, 간접적으로는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기회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의 입양은 최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1년에 2,464명의 아동이 입양되었던 것에 반해, 2021년에는 415명만이 입양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a). 국내와 국외입양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국내입양의 감소 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11년 기준 1,548명의 아동이 국내 입양되던 것에 반해 2021년은 85.4%가 감소한 226명 만이 입양되고 있다(국외 입양의 감소 폭은 79.3%). 이러한 입양 감소의 한 원인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아동 수, 즉 입양대상 아동 수의 감소를 꼽을 수 있으나, 출산율 감소로 인한 아동 수 감소의 폭보다 입양아 수 감소의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2012년 입양특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입양절차의 공공성 강화(부모자격 강화)로 인해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입양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차후 연구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30년 동안 아동 및 가족학, 사회복지학 전공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아동학, 아동복지와 가족복지, 건강가정론 등의 관련 전공과목도 크게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대학전공교재가 발간되어 사회복지사와 건강가정사, 보육교사 등을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관련 전공 대학생들은 전공 이수 시 아동복지론이나 가족복지론 등 관련 강의와 저서를 통해 입양과 입양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대학에서의 입양인식 및 이해교육은 위에서 언급된 전공에서 주로 다루어지며, 전공자들은 관련 전공과목을 통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입양교육을 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공교재에서 '입양과 입양 가족'의 내용은 전공생들에게 입양가족과 최근의 입양환경(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입양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련 전공 교재에서 입양을 어떠한 관점과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 전공서와 관련해서 입양과 입양가족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접근과 이들에 대한 비편견적 접근에 대해서는, 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에서 가족에 대한 관점이나 편견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강운선, 2010; 김자영·조병은, 2008; 김현수·정병삼·박분열, 201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2020)의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지침서를 살펴보면, 전체 교과목 중 입양아동이나 입양가족에 대한 목차가 거의 없고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교과목은 아동복지론 뿐이다.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해 언급될 여지가 있는 가족복지론에서도 다양한 가족 유형으로는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가족 등을 다루고 있을 뿐 입양가족에 대한 목차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학 및 관련 전공자들도 전공서적에서 입양가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입양에 대한 접근이나 입양의 편견에 대해 다루어진 연구가 미흡한 것은 오랜 기간 비공개입양이 주류를 이루었고, 공개입양 역사가 20여년 정도로 비교적 짧아, 타 분야에 비해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탓으로 보여진다. 최근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 이슈를 다룬 연구들이 보다 다양해지고는 있으나(김임순, 2021; 박미정, 2013; 안재진 외, 2010; 이선형 외, 2021), '입양의 편견'과 같은 연구는 이슈로 주목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전공교재, 일반서적, 미디어 등의 입양에 관련된 내용분석 연구가 미흡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에서 전공교재로 활용되는 아동·가족복지학 서적에서 입양 및 입양가족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전공교재에 담겨 있는 입양 혹은 입양가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다 특히 고정관념이나 편견적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출판된 전공교재의 입양과 입양가족의 목차와 내용을 확인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주제에 대한 내용분석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양과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적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공교재 내용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전공교재 내용보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입양가족의 적응과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입양을 통한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입양 문화가 변화되고 있음은 유사녀가정의 입양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2017년 입양통계 결과, 유사녀 가정의 입양률이 34.4%에 이르고 있는데(아동권리보장원, 2018), 일반적으로 난임가정에서 입양을 한다는 편견을 넘어, 자신의 아이가 있더라도 입양을 하여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가정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개입양가족이 입양을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적응하고 있으며(권지성 외, 2016), 입양아동의 종단연구 결과 입양아동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교우관계, 또래애착, 대인관계만족도 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재진 외,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입양가족이나 아동이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입양가족은 비입양가족이 가족으로서 갖는 보편적 발달과업과 함께 입양가족만이 갖는 특수한 발달과업도 동시에 갖고 있다. 김외선(2016)의 연구에서는 입양부모의 특성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적극적으로 부모가 됨, 둘째, 소수집단에 속함, 셋째, 부모자격을 검증받음, 넷째, 부모기에 늦게 진입함, 다섯째, 부모의 입양동기가 사회적 편견과 맞물림, 여섯째, 입양사실 알려주기, 편견 대처하기 등 덧붙여진 부모과업이 있음이 그것이다. 특히 '입양 말하기'와 같은 특성은 비입양가족이 갖고 있지 않은 전형적인 발달과업에 해당이 된다 하겠다(Brodzinsky, Smith & Brodzinsky, 1998).

입양부모의 입장에서는 입양아동이 가족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비입양가족과 다른 발달과업 달성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 또는 사춘기에 정서 및 자아발달, 또래관계, 학업성취의 면에서 문제행동이나 부적응 행동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 경우도 있었고, 입양 후 자녀양육 스트레스, 입양자녀와의 세대 차이, 퇴직 또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건강의 문제 등이 나타나면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권지성 외, 2016; 이선형 외, 2021).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은 비입양가정인 일반가정에서도 생애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사건(events)이고 경험이다. 이에 따라 다른 선행연구에서 공개입양가족들이 생애주기를 거치면서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경험들을 잘 극복해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연구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입양가족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고 하였으며(권지성, 2004), 입양 후 입양부모로서의 행복, 내적인 성장, 친밀해진 부부관계, 호의적인 사회적 시선 등을 경험하고 있다(안재진 외, 2010; 이선형 외, 2021; 현태욱, 2004)고도 하였다. 이는 다른 유형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생애주기를 거치면서 긍정적 경험과 어려움이 교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러 입양부모들은 입양가족을 이루기 전후로 사회적인 편견을 경험한다고 하고 있다. 입양부모 272명을 대상으로 한 배윤진 외(2016)의 연구에서 입양부모들이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사회적 편견에 대한 우려(23.2%)'라고 응답하였으며, 입양 후 양육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도 '입양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28.7%)'라고 응답하였다. 입양모의 입양과정에서의 편견과 차별을 다룬 연구에서, 국내 입양부모들은 긍정적 편견보다는 부정적 편견에 대한 노출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신정훈, 2015). 이 연구에서 대표적인 부정적 편견으로 첫째, 입양은 남의 자식을 키우는 일로써 '가짜부모'라는 인식, 둘째, 입양아동은 태생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춘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든가, 셋째, 아동은 불쌍한 존재며, '상처가 많을 것이다'라는 점을 들고 있었다. 입양가족 당사자인, 『그렇게 가족이 된다』의 저자가 일상에서 겪은 경험을 살펴보면, 입양가족의 편견적 용어와 인식에 대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정은주, 2021a).

초등학교 시절, 아들이 어느 날 사전을 뒤적이었다가 말했다. "입양 뜻이 왜 이래? 남의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삼는 것이 입양이라고 나와 있어." (p. 120)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들의) 반 친구가 "네 엄마가 널 둔 주고 사왔지?" (p. 131) 하고 놀린 적이 있었다.

입양 관련 인식은 통계청 사회조사의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여건이 되면 입양하고 싶다"는 비율이 2008년 15.3%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10.9%로 10여년 만에 4.4%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 2020). 반려동물을 분양받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인 것을 고려한다면 입양을 통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보다 비용과 책임이 덜한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입양관련 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의 실태조사도 찾아볼 수 있는데, 가족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중 입양가족은 여타

가족의 형태보다 수용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 입양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수용도는 81.2%로 여타 다양한 가족(미혼부모나 비혼동거 자녀)에 비해 높았고, 그 다음이 한부모 가족의 자녀(80.2%), 다문화가족의 자녀(79.2%)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미혼부모나 비혼동거 자녀보다는 한부모, 재혼가족, 입양된 자녀의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임을 엿볼 수 있는 결과로, 입양아동과 가족이 차별이나 편견을 경험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이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다.

2. 가족에 대한 편견을 다룬 선행연구

편견이란 사전의 지식, 사고, 이성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태도나 의견 혹은 감정 등을 말한다(Jones & Sparks, 1992). 그래서 편견은 근거가 없거나 정보의 부족에서 비롯되어 나타나는 태도 및 신념이라 할 수 있다. 편견은 어린 시절에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듣거나 보면서 학습되어 그 사회집단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것으로, 한번 형성된 후에는 자신의 강한 신념으로 굳어지며,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Kim, 2003). 일상에서 개인이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일상생활 중에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정보로 인해 갖게 되는 태도나 의견, 혹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잘 나타내는 연구로, Guttman, Geva & Gefen(1988)은 이혼가족인 7, 8학년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고정관념이 이혼가정의 학생이 부모가 있는 가정의 학생보다 학습적, 감성적, 사회적 기능에 모두 더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정 가족형태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그 당사자의 어떠한과 별개로 이미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한국의 가족정책에서는 사회적 편견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노력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편견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구양연 외, 2020; 김부경·원진숙, 2015). 구양연 외(2020)의 연구에서는 조사된 유아들의 경우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수준은 낮았지만 일부 인종별 편견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다문화 접촉경험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전유영과 이은영(2012)의 연구에서는 유아책에서의 장애에 대한 편견에 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유아들이 가질 수 있는 편견과 잠재적 편견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책 17권을 선정하여 Siller(1969)가 주장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척도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진 바가 있다.

그동안,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 이동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구미향, 2008; 권지성·안재진, 2005; 김인순, 2021; 박미정, 2013; 권지성·안재진, 2005; 안재진 외, 2017; 최운선 외, 2019 외 다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교재의 '입양' 내용을 분석한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전공교재 분석이나 '장에 편견'의 내용 분석 등의 연구물을 찾아 고찰하였다. 이효림과 박은주(2022)는 대학교재에서 '아동관찰과 행동'에 관한 교과목 내용을 파악하였는데, 크게 교과목의 구성내용과 소주제별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권충훈(2016)은 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교과목 교재 내용분석에서 교과목의 내용과 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김은주와 이강훈(2017)은 영유아건강교육 관련 대학교재의 주제영역별, 세부내용별 출판동향과 방향성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였으며, 김보영, 윤재희와 정서연(2019)는 2016~18년 사이에 발간된 아동복지와 권리교재의 최근 출판경향 등을 분석하였다. 반면 입양과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다양한 방식의 접근, 즉 국가 기록물이나 언론보도 분석이나(김재민, 2015; 류희경, 2012), 대중매체인 TV나 신문기사에 대한 분석(임영언·임채완, 2012), 입양가족을 소재로 한 그림책의 출판현황과 내용 분석(박현정, 2014)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입양의 편견을 직접적인 주제로 다룬 것은, 입양가족의 인터뷰를 통한 입양가정의 편견이나 차별(배운진 외, 2016; 신정훈, 2015)에 대한 연구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아동·가족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공학생들은 전공교재를 통해 입양가족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고, 가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다양한 가족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 전공교재 내용분석이 중요한 과업이 될 수 있다. 즉, '입양'과 같은 주제는 전문적인 분야이며, 당사자의 경험과 관점이 반영되지 못하면, 저자의 편견적인 내용이 교육과정에 녹아질 수 있고, 이러한 점은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과과정의 중요한 교육매체인 대학전공 교재들을 선택하여, 이들 교재가 포괄하고 있는 '입양'의 교육내용과 수준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공교재에 포함된 내용이 다양한 영역의 교재마다 일관성, 보편성, 통일성이 있는지,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주제들을 어떻게 포괄하고 있는지,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대상 대학교재는 최근 5년, 즉 2017년 이후 자료수집 시점인 2021년도 출판된 '아동학', '가족학' 및 '가족복

지론', '건강가정론' 등의 저서에서 '입양과 입양가족'과 관련된 장(Chapter)과 그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관련 전공서적의 선정기준은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용 책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종 정책 보고서, 외국 번역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전공교재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수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도서관의 저서 목록에서 '아동학, 아동복지(론), 가족학, 가족복지(론), 건강가정(론)' 등의 키워드를 통해서 교재 및 저서를 검색하였다. 검색결과, 아동복지론 17권, 가족복지론 35권, 건강가정론 8권을 검색하였다. 둘째, 관련된 저서의 목차와 차례를 통해 '입양과 관련된 장(chapter)'을 확인하였으며, 입양주제가 포함된 장의 내용(page)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셋째, 교재 안에 '입양'이 없는 저서인 가족학, 건강가정론은 제외시켰으며,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된 분석 자료인 전공 교재 11권을 선택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재의 선정기간은 2021년 8월~12월까지였으며, 이후로 구체적으로 본문에 대한 내용분석이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내용분석을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기초적인 내용분석을 위해 교재 안에 포함된 해당 내용을 전사하였다.

2. 분석 방법

전공교재의 입양과 입양가족의 내용분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신정훈(2015)의 입양모의 입양 편견 연구와 박현정(2014)의 입양가족 그림책 내용분석에서 인용된, Park(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기준을 수정·보완하였다(표 1 참조). Park(2009)은 한국인 입양아동을 소재로 한 아동문학의 분석기준을 저자, 발간 일자, 이야기 속 고정관념들, 적절한 삽화, 적절한 언어, 이름, 태어난 곳, 부모들(묘사), 입양과정, 입양문제, 지역사회, 미래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입양 편견에 대한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임영언과 임채완(2012)의 연구에서는 전공교재에 대한 분석은 아니었으나, 국내에서 발간되는 신문기사의 해외입양인에 대한 사실과 칼럼에 드러난 논조와 주장에 대해서 내용분석을 하여, 이러한 기준도 참조하여 일부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분석기준에 근거하여 교재를 분석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오류를 줄이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족복지학(10년 이상 경력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공동연구자 1인과 공동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입양의 개념, 현황, 이슈, 사회적 편견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연구자는 분석기준을 준거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후, 가족학 및 사회복지학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나, 객관성이 결여되는 부분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 본 연구의 입양, 입양가족의 내용분석 기준

분류	분석 기준의 예시
1) 고정관념 및 편견적 내용	입양의 현황: 통계의 해석은 어떠한가? 입양부모: 입양부모는 양육을 어려워한다 등과 같은 편견 입양아동: 입양아동은 사춘기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등과 같은 편견 입양기관: 해외입양을 통해 이득을 취한다는 등의 편견 용어의 사용: 친부모(생부모), 버려진(지켜진) 아이, 뿌리찾기(생부모찾기) 등의 용어 사용
2) 입양지원 대책 및 절차 등	최근 입양가족 정책이나 서비스를 반영하여 제시하였는가? 국내 입양의 절차를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출처] Park(2009)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함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복지학 전공교재의 입양 및 입양 가족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전공교재에 담겨 있는 입양 혹은 입양가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고정관념이나 편견적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최근 출판된 아동·가족복지학 전공교재의 입양과 입양가족의 목차와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둘째, 입양과 입양가족의 내용분석 기준(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해 편견적 내용 없이 기술하고 있는가?
- 셋째, 아동·가족복지학 전공교재 내용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전공교재에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IV. 분석결과

1. 분석교재의 구성 목차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전공교재의 구성 목차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전공교재에서 입양의 개념과 정의의 경우 분석 교

재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며, 입양의 유형과 입양 삼자(친생부모, 입양인, 입양부모)에 대한 내용은 C교재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술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입양의 역사와 입양가족의 사례, 기사의 인용, 입양 이론 등, 해외 입양의 내용이었다. 입양의 현황 즉, 보호대상아동수, 국내 입양아동수, 발생원인, 입양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대한 현황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고(7개 저서), 입양의 진행절차에 관해서는 입양특례법상 입양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9개 저서).

내용에 관한 부분을 개략적으로 언급해보면 입양가족의 문제(특성)에 대한 내용에서는 친생부모(예, 미혼모), 입양인, 입양부모에 대해서 기술한 경우가 많았고, 입양기관을 포함하는 저서들이 있었다. 입양가족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는 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기술한 경우가 많았다.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일부 가족학 저서에 기술하고 있었으며, 입양의 사례나 기사의 인용, 입양의 이론, 가치, 실천과정, 해외입양에 대해 기술한 책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교재의 구성 목차

구성 목차	가족복지학 등(년도)							아동복지학 등(년도)			N	
	A (2020)	B (2018)	C (2020)	D (2018)	E (2019)	F (2017)	G (2019)	H (2018)	가 (2021)	나 (2019)		다 (2020)
1. 입양의 개념, 목적, 의의	○	○	○	○	○	○	○	○	○	○	○	11
2. 입양의 역사	-	-	-	○	-	-	-	-	○	○	○	4
3. 입양의 유형과 구성요건	○	○	-	○	○	○	○	○	○	○	○	10
4. 입양의 현황(통계 등)	○	-	○	-	○	○	-	○	-	○	○	7
5. 입양의 진행 절차	○	-	○	○	○	○	-	○	○	○	○	9
6. 입양가족의 특성과 문제	○	○	○	○	-	○	○	○	○	-	-	8
7. 입양가족 정책, 서비스 등	○	-	○	○	○	-	○	-	○	-	○	7
8. 입양가족의 사례, 기사의 인용	-	-	-	-	-	-	○	-	○	-	-	2
9. 입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	○	○	○	-	-	○	○	-	5
10. 입양 이론, 가치, 실천과정 등	-	○	-	-	-	-	-	-	-	-	-	2
11. 해외입양 등	-	-	-	-	-	-	-	-	○	-	-	1

2. 분석 기준에 따른 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전공교재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편견적 내용에 대해서는 입양실태 및 현황, 입양부모, 입양아동, 입양기관, 용어 사용, 입양지원 정책 및 절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고정관념 및 편견적 내용

(1) 입양 실태에 대한 언급

입양은 '자신이 태어난 부모 밑에서 성장할 수 없는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Brodzinsky & Schechter, 1993)'이다. 그러나 전공 저서에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입양에서 입양부모들은 '양육의 용이성'과 '비밀보장을 위한 미혼모 및 신생아 입양'을 선호한다고 기술하였고(A저서, C저서), 또 다른 저자는 국내입양을 '불균형적 입양'으로 소개하면서, 그 근거로 '어린 아동(신생아) 선호', '장애아동 기피', '여아 선호'를 제시하였다(D저서). 이러한 표현은 입양부모의 관점 보다는 타자(제3자)가 '입양부모 중심의 선호 입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이면의 숨겨진 이해와 설명이 부족하다. 가령, 입양아로 신생아를 선호하는 것은 주로 미혼모가 낳은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가 많고(60-70%) 부모와의 애착문제를 고려했을 때에도 어린 연령에 입양되는 것이 좋기 때문이지 부모가 키우기 쉽거나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아동양육은 비입양부모라도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양육의 용이성'이란 표현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입양이 아동의 복지를 위한 '아동중심적'이라기보다는 가족과 부모 중심적 경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즉, 양육의 용이성과 더불어 가족의 혈통을 잇기 위한 강한 혈연주의의 전통으로 인해 입양가족이 최대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미혼모 아동 등 신생아 입양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A저서, p.486).

입양아동의 특성은 우리나라 입양 양태는 대리가정을 요구하는 아동중심적이라기 보다는 자손을 요구하는 입양가족과 입양부모 중심적 동기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양육의 용이성과 더불어 가족의 혈통을 잇기 위한 강한 혈연주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입양가족이 최대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미혼모 영아, 비장애 영아 등의 신생아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C저서, p.312).

또한 최근의 입양계에서는 비교적 공개입양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비밀 보장을 위해' 미혼모 및 신생아 입양을 선호한다고 기술하는 측면도 제고가 필요하다(D저서, 다 저서). 실제 현장에서는 여아선호가 높은 것, 장애아동 입양이 낮은 것, 영아 입양이 다수인 것이 사실이지만(보건복지부, 2021),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국내 입양문화에 대한 상황, 장애아동을 키우기 어려운 국내 현실, 미혼(부)모의 아동이 많은 점 등의 상황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하다. 더불어 아동과의 애착형성을 위해서 국내입양에서 영유아 입양이 많으며,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가정보호(가정위탁과 입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가정책(보건복지부, 2022b) 등에 대한 보완적 설명이 요구된다.

국내입양은 입양아동 중심이 아닌, 부모 중심의 입양이며, (중략), 비밀입양을 선호하고, 특히, 아동중 여아선호가 강하며, 장애아동 기피, 어린 연령의 아동선호 등 불균형적인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D저서, p.211 타 저서(2011)에서 인용).

연소자 선호현상은 국내 대부분의 입양부모가 아동 입양 시 혈액형을 가장 중요시 하고 다음으로 아이의 나이, 즉 신생아를 선호하는 것은 (중략) 입양아동을 자신의 친 자식인 양 가장하여 비밀입양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다 저서, p. 387 타저서(2008)에서 인용).

다음으로, 입양의 동기가 '난임(불임)'이며 난임부부가 '가족형성'을 위해 입양을 한다(F저서)는 표현도 제고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난임가정 뿐 아니라 유자녀가정의 입양도 34%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아동권리보장원, 2018), 입양동기나 실태에 대한 기술에 있어 단편적 설명보다 통계 이면의 원인과 상황에 대한 설명이 보완된다면, '입양의 포괄적 이해가 증가될 것이다. 또한 '입양부모 자격요건이 완화'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사실과 다르다(A저서).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부모 자격강화, 예비입양부모 교육강화, 법원허가제 등으로 이전보다 복잡한 입양절차가 진행 중이다(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입양은 불임 등과 같은 이유로 자녀가 없는 가족이 가족형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지만(F저서, p.207)

국내입양 아동이 증가한 것은 입양가족에 대한 입양수수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급, 입양휴가제 실시, 입양부모의 자격요건 완화 등 다양한 입양홍보사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A저서, p.485).

공개입양을 원하는 경향은 소수에 불과하고, 80% 이상이 입양아에게 입양 여부를 알리지 않는다(F저서) 라는 즉, '비밀입양이 많다'라는 언급은 최근의 공개입양문화와는 거리가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공개입양문화가 확산되면서, 입양부모들은 입양 자녀들 또는 가족들, 학교 등에 입양사실을 알리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비밀입양보다는 공개입양을 선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여아 선호도가 높고, 장애아 선호가 낮으며, 부모자적이 강화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는 이면에 복잡한 원인을 반영한 종합적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개입양을 원하는 경향은 소수에 불과하고, 80% 이상이 입양아에게 입양 여부를 알리지 않고, 대다수가 양자가 아닌 친자로 입적하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저서, p.217 : 타 저서(2004)에서 인용).

(2) 입양부모의 특성

입양부모는 공개입양이라 할지라도 입양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한 상황에서 입양에 대해 이야기해야 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입양아동이 가정에 잘 적응하고 한 가족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입양부모와 친생부모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는 전공교재에서 중요하게 파악되어야 할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부모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입양부모는 생부모와 관계로 인해서, '양모와의 관계가 깊은 관계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B저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다(C저서)'라는 기술은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의 국내입양은 신생아입양이 많고,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부모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으로 입양아동의 이해가 높아 양부모와 아동의 애착이 건강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 입양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입양아동들이 정상범위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안재진 외, 2015), 일부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도 존재할 수 있다.

입양부모: 입양인은 친생모에게서 버림받은 배신감 만큼이나 친생모를 향한 충성심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은 입양모와의 깊은 관계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B저서, p.419).

입양부모는 늘 차선책이다. (중략) 부모역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다. 친부모를 더 좋아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C저서, p.314).

입양부모의 특성을 기술할 때, 출산과 다름으로 인해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 부모는 완벽한 아동을 원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입양 아동의 부모문제'에서 찾으려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C저서, H저서). 많은 공개입양부모들이 양육과정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일부 부모들은 편견으로 인해 자녀 양육시 문제의 원인을 '입양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이 최근의 공개입양부모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현상은 아니다. 양부모들은 입양 후 삶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적응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부모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였다(권지성, 2004; 이선형 외, 2021). 입양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비입양가정에서도 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사건이며, 입양부모 이해를 위한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지점으로 생각된다.

입양부모는 출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출산과 다르다. 따라서 입양부모는 친부모가 가질 수 있는 지이나 규제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C저서, p.309).

(입양부모 문제 중): (입양부모는)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은 늘 차선책이 되거나 자신이 낳지 못한 '이상아'를 대치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아동이 되어야 하고, 아동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 '나쁜 혈통 탓'으로 돌려질 수 있다(A저서, p.487).

또한 입양부모의 입양의 동기를 난임으로만 제시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근의 통계와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C저서). 그리고 '친자녀가 있는 가정이 거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입양부모 중에는 자신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둘째, 셋째를 입양하는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A저서). 또한 자신과 유사한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가저서)은 현재 입양절차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입양의 동기는 불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혈통중심 남아선호사상에서 비롯한 것으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꽤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C저서, p.312 : 타 저서(2004)에서 인용).

(중략) 입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양가족에 친자녀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A저서, p. 486).

불임인 입양부모는 자신이 낳았을 아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아이를 입양하고(가저서, p.315).

‘입양부모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력이었다’는 것은 최근 공개입양문화와 거리감이 크다(D저서).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입양부모를 조사한 결과는 입양부모가 양육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편견’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장창수와 배지연(2016)에 의하면 입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26.3%)이 크다고 하였다. 이처럼 공개입양가족의 어려움은 경제적 측면보다도 입양의 편견에 대처하는 과정이나 아동의 양육방법에 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파악사태가 증가하고 있다(F저서)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국내 파악통계는 입양특례법이 아닌 민법 입양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입양특례법상 파악통계는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1건이 있었다(한국유아교육신문, 2021).

국내 입양가족의 아동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D저서, p.221).

부부 또는 가족중심으로 입양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생겼을 때는 입양 아동을 일방적으로 파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략) 대부분 양부모가 입양하는데 아동의 배경, 연령, 성별, 혈액형 등 지나치게 선별적이며, 입양방법 또한 비밀입양이다(F저서, p.220).

많은 저서들이 입양부모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면서 문제적 관점에서, 입양동기(난임)나 심리적 특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불임과 관련한 심리적 어려움과 상실감, 낳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불안, 부모역할의 불안감으로 표현한다. 한편, 최근 공개입양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어떤지, 입양과정에서 어려움과 양육(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발달과업과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작성한 저서는 미흡해 보이며, 향후 집필에서 이 부분의 보완이 요구된다.

(3) 입양아동의 특성

전공교재 분석 결과 입양아동의 특성을 대표하는 단어들은 상실, 분리, 애도, 당혹감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먼저, A저서는 입양아동은 유전적 당혹감과 분리와 상실의 역사로 입양아동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B저서에서도 입양아동은 사춘기가 되면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상실과 애도의 감정, 버려졌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입양아동의 정서를 수치심, 불신 등 주로 부정적 정서로 설명하고 있다.

(입양아동의 문제) 유전적인 당혹감을 가진다. (중략)입양아동은 독특한 분리와 상실의 역사를 갖고 있다(A저서, p.488).

입양인: 입양부모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애도한다. 자신들이 버려졌다는 것을 이해한다(B저서, p.420). 저항이나 반항 없이 잘 자라주던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파괴적 행동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은 입양부모에게 배신감을 안겨 줄 수 있다(B저서, p.421).

입양인의 주요정서: 수치감, 분노와 불신, 거부의 두려움, 통제력과 무력감의 양가감정(B저서, p.421)

입양아동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인 문제는 분리와 애착 문제, 부모 중복의 문제, 그리고 자아정체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나 저서, 373; 타저서(1997)에서 인용).

국내 공개입양 아동의 경우, 애착형성, 사회성 등에 있어서 입양사실을 인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안재진 외, 2015), 단편적인 설명은 입양가족과 아동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가족 형성에 대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입양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인 사회적 편견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친부모와 양부모가 다름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비입양가족과 다르게 보이는 발달과업인 것은 분명하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함으로써 인해 입양아동이 가질 수 있는 건강성과 탄력성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입양아동은 또한 유전적인 당혹감(genealogical bewilderment)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친생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갖는 욕구로,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느끼기 위해 자신의 배경과 개인력, 가족사와 가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다(가 저서, p. 373).

입양아동의 특성 자체보다는 현재 부모와의 적응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입양됨을 어떻게 인식하며, 생애를 살아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입양아동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며, 입양의 심리·정서적 요인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에 대한 전체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청된다(박미정, 2013).

(4) 입양기관의 이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교재는 ‘사회복지기관’의 사업과 프로그램, 기관의 목적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입양기관이 국외(해외)입양을 선호하여, 국내입양을 소홀히 하거나, 선택적 알선을 하는 식으로 표현하거나, 과

거 비밀입양이 주류이던 20년 전의 상황의 '폐쇄적' 입양실무에서 '개방적' 입양실무로 전환해야 된다(D저서, F저서)고 기술하는 것은 최근의 입양기관의 이해나 공개입양문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나 저서).

국내 입양 전문기관의 부족과 전문종사자의 부족, 입양기관의 국외입양 선호와 상담원의 적극적인 국내 입양 성사 의지 결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D저서, p.211: 타저서(2011)에서 인용).

현재의 폐쇄적 입양실무에서 (중략) 개방적 실무로 전환이 필요하다(D저서, p.222).

이들 기관은 국외입양을 겸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인기를 내세워, 선택적으로 입양 알선을 할 우려가 있다(F저서, p.221).

국내 입양을 희망하는 수는 많으나, 실제로 입양이 성립되는 경우는 적다. 이는 입양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입양기관들의 폐쇄적 운영으로 충분한 정보가 입양 희망자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F저서, p.221).

국내입양이 부진한 이유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족관, 부모 중심의 입양, 비밀입양으로 인한 까다로운 아동선정 조건, 국내 입양전문기관의 부족, 입양알선 기관의 국외입양에 대한 선호 등을 들 수 있다(나 저서, p.377)

(5) 용어의 사용

언어는 사고를 담고 있으므로 입양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변화가 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배운진 외, 2016). 앞에서 일부 언급되었던 내용이지만 일부 전공서적에서는 입양인이 친생모와 관계에서 '버림받은 존재, 배신감, 충성심' 등을 가질 수 있다고 추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B저서, D저서).

(입양인)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이해한다(B저서, p.420).

버려지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D저서, p.219).

또한 '불법으로 입양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H저서)'는 설명은 최근의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민법입양, 불법(사적) 입양의 이해가 부족한 표현인 것으로 생각된다. 입양의 개념은 입양특례법상 입양, 즉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가정보호서비스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불법 입양'이라는 표현은 좀 더 구체적인 근거에 바탕한 설명이 필요하다.

입양은 즐고 베이비박스에 버려지거나 불법으로 입양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H저서, p.310).

자기 스스로가 아닌, 타자에 의해 '버려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입양인이나 입양부모, 낳은 부모에게도 적당한 단어가 아니며, 미래 사회복지사나 건강가정사를 양성하는 전공교재에서 사용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단어이다. 최근 입양부모의 경험을 담은 이렇게 가족이 된다는 책자에서는 '버려진'이라는 단어보다는 '지켜진' 아동으로 사용하기를 제안하였고(정은주, 2021a), 이러한 용어들은 입양아동의 입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입양지원 대책 및 절차 등

정부는 2007년 이후, 국내입양가정의 입양수수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급, 의료급여 혜택 제공, 입양휴가제 실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도입하여 입양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가족학 저서들이 입양가족을 위한 서비스 안내에서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 수당, 장애아동수당, 상담서비스, 의료급여, 부모교육 등에 대해서 적절히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책에서는 정확하지 못한 자료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가령, 현재 우리나라에서 입양부모는 법원으로부터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기관으로 2022년 8월 기준 270만원의 입양수수료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2b). 하지만, A저서는 입양부모가 입양수수료를 100-300만원에 내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입양부모는 100-300만원 정도의 입양수수료를 지불한다(A저서, p. 499).

입양아동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한다(A저서, p. 499; C저서, p. 320).

한편, 아동 및 가족학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 입양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정책들은 최근 서비스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입양의 진행절차 또한 정부의 아동서비스 절차에 따라서 정확히 제시하였으며, 친생부모와 입양부모의 입장에서 입양절차를 설명하는 저서들도 있다. 보호대상아동의 아동 이익최우선의 원칙은 헤이그협약에 따라서 원가정(국내입양) 국외입양) 시설 입소의 의미이지만(박성민, 2020), 이외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가 저서.) 또한 입양가정의 방문조사 시 불시 방문조사와 같은 제도는 입양부모 측면에서는 '인권침해'의 문제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가 저서).

정부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할 경우 원가정보,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양 순으로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가 저서, p.361).

가정조사: 직장, 이웃, 가정 등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불시 방문조사 하여 한다(가 저서, p. 381).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아동 및 가족복지학 전공 교재에 기술된 내용에 있어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적 내용이 반영되어있지 않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학 전공교재 11권을 대상으로 내용분석 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결과 상당수의 저서에서는 입양실태에 대한 내용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혈통을 잇기 위한 강한 혈연주의'가 입양의 동기라고 언급되었다든가 '양육의 용이성'이나 '비밀보장을 위한 미혼모 및 신생아 입양 선호'에 대한 언급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대체로 최근의 입양 실태나 정책적 변화나 공개입양가족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난임부부에 의한 입양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생명존중 및 아동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동을 입양해 키우는 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입양 시 여아 선호 현상만 보더라도 혈통을 잇기 위한 입양의 차원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과 공개입양문화 확산 등으로 법과 제도적인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문헌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히 비밀입양문화 당시의 내용을 기술하거나 과거 작성된 문헌을 재인용하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기술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물론 전공교재는 논문과 다르게 가장 최근의 실태나 정책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최근에 발간된 교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동 및 가족복지학 전공교재에서 입양과 입양가족에 대한 기술의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입양가족은 다른 형태의 가족과 동일하게 보편적인 욕구와 특수한 욕구를 갖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이들은 여타 가족과 같이 일반적인 가

족발달의 단계를 갖기도 하지만 입양이라는 가족형성의 특수성으로 인해 입양가족만의 독특성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입양 부모와 입양아동이 갖고 있는 특성을 문제의 관점으로 부각시켰을 때에는 이들 가족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 수 있다. 아동 및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입양부모나 아동, 친생부모, 입양기관을 편견없이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대표적으로 입양아동은 친생부모가 자신을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양아동은 분리와 상실을 경험할 수 있으며(박현정, 2014), 입양아동들이 겪는 상실에 관한 애도의 경험은 시기와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입양가족을 형성하는 모든 가족이 지나가야 할 통과 의례와 같은 과정이다. 그러나 부모와 건강한 유대와 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경우는 이러한 상실의 문제를 매우 빠르고, 고통 없이 해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박현정, 2014).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난임을 겪거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가정은 입양으로 인한 부모 됨의 기쁨으로 인해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다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입양은 가족의 긍정적 경험에도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지성·안재진, 2005; 남연희·김의남, 2006). 최근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입양가족의 긍정성과 건강성을 발굴하는 것에 초점을 둔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이선형 외, 2021). 전공자들이 입양가족을 바라볼 때 입양가족은 입양이라는 방식으로 가족을 형성해 나가면서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모두 하게 되며, 여타 가족들과 같이 건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가고 있는 가족의 한 형태로서 바라보고 이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의 논의는 두 번째와 이어지는 부분으로 아동 및 가족복지학 전공교재에서는 입양가족 당사자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다. 당사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 표현으로 '타자에 의해 버려진', '원래 가족', '유전적 뿌리'라는 단어 등의 사용은 입양가족에게 좀 더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입양가족의 관점에서 자신들에게는 전공서적에서 표현되고 있는 가족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공 교재 본문에서 '입양부모는 아동과 애착형성이 어렵고', '난임가정이 많으며', '출산이 아닌 입양은 다르다는 인식', '양부모는 친모에 비해, 지지와 규제력이 없다'는 기술은 최근의 공개입양가족과 부모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입양부모는 생물학적으로 입양 자녀와 연결이 되지 못하여 불안하고, 또한 어려움을 '입양 탕'으로 돌리며 두려움이 크다는 것도 제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입양부모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편견'이라는 사실을 비추어볼 때(배윤진 외, 2016) 이들의 가족 내부적인 역동의 문제보다도 사회의 인식 개선의 문제가 더 개선되어야 할지 모른다.

공개입양 아동의 경우, 애착형성, 사회성 등에 있어서 입양 사실을 인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안재진 외, 2015) 유전적 당혹감과 상실과 애도, 분리와 상실의 역사를 가진 존재라고 언급하거나, 입양아동은 사춘기가 되면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상실과 애도의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들의 본원적인 어려움에 대한 사실과 부합되지 않고 있다. 국내 입양아동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왔던 연구팀에서 발표한 입양아동발달에 관한 종단연구에 의하면, 입양아동은 자신의 입양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위 친구들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할수록, 부모와 입양관련 대화를 더 자주 나눌수록 입양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운선 외, 2019). 이와 같이 입양과 입양아, 입양가족에 대한 근거가 경험적·이론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 하지 않은 내용은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편향된 설명이 오히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접근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공개입양과 입양특례법 이후 입양문화가 달라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볼 때 가족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표면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을 포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입양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입양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은 입양가족의 건강성 증진이나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신정훈(2015)의 연구에서 입양에 대한 편견의 원인으로, 입양관련 지식과 경험의 부재, 입양가족을 직접 접할 기회의 부족, 대중매체의 부정적 소식이나 부정적 사건을 접했을 때라고 보고하였다. 전공교재 본문에서는 입양기관이 국외(해외)입양을 선호하여, 국내입양을 적게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도 입양정책 변화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파악과 더불어 과거 해외입양이나 입양기관의 편견에서 비롯된 예라고 볼 수 있다. 입양이나 입양가족, 입양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향후 입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표현이 요구된다 하겠다.

향후, 교재 집필에 있어서 공개입양부모의 인구나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지, 입양 전과 입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양육(적응)과정에서의 독특성은 무엇인지, 이를 고려하여 이들의 발달과업은 비입양가족의 발달과업과 어떻게 다른지, 입양아동이 공개입양문화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가족 내 발달과업 상 특성은 무엇인지,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보완된다면 전공서적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2. 제언

대학전공교재의 경우, 대학생 등 후세대를 교육하는 가치를 내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무엇인지 중요하다. 더군다나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나 건강가정사의 경우 입양의 가치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당사자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입양의 가치가 평가절하 될 가능성이 높고, 입양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국내 대학전공교재에 기술되어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과 내용을 분석하고, 편견적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7년도 이후의 교재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과 관련된 더 많은 문헌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극복되어 이루어진다면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과정은 현장 종사자 및 전문가들에게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종합적인 교재 작성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교재에 있어서, 첫째, 입양과 입양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입양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둘째, 잠재적 편견을 반성적 사고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입양과 관련 되어서 당사자 집단이 경험할 수 있는 편견이 존재하지 않도록 신중한 단어를 선택하여, 전공생들이 입양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돕는 방향으로 전공교재가 집필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양과 입양가족을 주제로 가족학, 아동학, 가족복지학, 건강가정론 전공자들의 일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일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사하게 작성되어 제외하였지만, 선정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자의성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며 편견의 범주를 세분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 서적들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언급된 11권의 아동 및 가족복지 전공교재에서 입양과 입양가족 관련 저술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이나 편견적 내용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여 교재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지면의 한계로 다루지 못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균형 잡힌 서술을 통한 연구가 시도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전공교재를 대상으로 편견적 요소를 분석하였으나, 향후, 언론매체(미디어, 신문기사, 드라마, 인문서적 등)의 편견적 요소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

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차원에서 입양가족이 조명되는 것은 이들의 편견적 요소가 제거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된 건강가정론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후 출판된 책 중에서 '입양가족'을 다룬 내용이 거의 없었다.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가장 대표적 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가족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혼인'과 '혈연', '입양'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건강가정론의 교과과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가족의 사례로 입양가족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운선(2010). 제 7차 사회·문화 교과서의 가족 단위에 대한 비판적 내용분석. 사회과교육, 49(2), 33-52. UCI : G704-001280.2010.49.2.003.
- 구미향(2008). 입양가정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과 호주의 공개입양가정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6), 105-119.
- 구양연·유지희·현예함·장경은(2020). 유아의 성별, 연령 및 다문화 유아 접촉 경험에 따른 유아의 인종에 대한 인식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 한국유아교육연구, 22(2), 163-186. DOI : 10.15409/riece.2020.22.2.7.
- 권지성(2004).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아동복지학, 17, 7-48. UCI : G704-000946.2004.17.004.
- 권지성·변미희·안재진·최운선(2016). 국내 입양부모의 입양 후 적응을 위한 사후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2), 345-366. DOI : 10.13049/kfwa.2016.21.2.8.
- 권지성·안재진(2005). 국내 공개입양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9(3), 393-412. UCI : G704-000427.2005.9.3.006.
- 권충훈(201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정책 고찰과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교과목 교재 내용 분석. 인문사회21, 7(5), 167-189. DOI : 10.22143/HSS21.7.5.9.
- 김보영·윤재희·정서연(2019). 아동권리와 복지 교재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3(5), 99-124. DOI : 10.32349/ECERR.2019.10.23.5.99.
- 김부경·원진숙(2015). 다문화 동화의 내용 요소 분석 -인물, 갈등의 양상, 해결 방식, 다수자의 편견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8(2), 69-96. DOI : 10.14328/MES.2015.6.30.69.
- 김외선(2016). 국내입양부모교육에 관한 방안 고찰. 부모교육연구, 13(1), 109-127.
- 김은주·이강훈(2017). 영유아 건강교육 관련 대학교재의 출판 동향 및 내용분석. 교사교육연구, 56(3), 324-335. DOI : 10.15812/ter.56.3.201709.324.
- 김임순(2021). 공개입양 부모가 입양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 현상.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자영·조병은(2008). 초·중학교 실과(기술, 가정) 교과서의 가족관련 단원 내용 비교분석: 구조기능론과 건강가정 관점에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6(2), 137-153. UCI : G704-000012.2008.46.2.001.
- 김재민(2015).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 연구: 국가기록물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수·정병삼·박분열(2019).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나타난 결혼을 매개로 한 가족 윤리의 내용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1), 637-666. DOI : 10.22251/jlcci.2019.19.21.637.
- 남연희·김의남(2006). 공개입양부모의 공개입양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시아아동복지연구, 4(4), 123-140.
- 류희경(2012). 휴먼다큐멘터리의 입양에 대한 재현과 의미 구성: (MBC 휴먼다큐-사랑) '네 번째 엄마'와 (KBS 인간극장) '고마워, 나의 열 손가락'에 대한 분석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정(2013). 공개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입양 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10(2), 1-22.
- 박성민(2020). 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언: 헤이그협약과 아동이익 최우선원칙에 관하여. 제2회 국회 가정보호컨퍼런스 자료집, 17-28.
- 박현정(2014). 입양가족을 소재로 한 그림책의 출판현황과 내용분석. 한국도서교육학회지, 2(1), 153-177.
- 배윤진(2017). 입양가정 편견을 넘어 아동의 행복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브리프, 58호, 1-4.
- 배윤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2016).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2):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서울 :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21). 2020년 입양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2022a).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2022b). 아동복지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신정훈(2015). 입양에 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입양모의 관점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아동권리보장원(2018). 입양아동통계(2017년). 서울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281&cntntsId=1345>에서 2022.06 인출.

- 29) 안재진·권지성·변미희·최운선(2010). 공개입양가족의 입양 관련 의사소통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1, 143-172. UCI : G704-000946.2010.31.002.
- 30) 안재진·권지성·변미희·최운선(2015).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 2015년 제5차 양적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 중앙입양원(현, 아동권리보장원).
- 31) 안재진·최운선·변미희·권지성(2017). 국내입양아동의 학업성취수준과 영향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9(3), 141-164. DOI : 10.20970/kasw.2017.69.3.006.
- 32) 여성가족부(2021).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세종: 여성가족부.
- 33) 이선형·임춘희·배지연(2021). 공개입양가족의 입양 적응과 입양관련 프로그램 참여경험 연구: 초등학교 자녀를 둔 입양모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정책*, 25(3), 47-68. DOI : 10.22626/jkfma.2021.25.3.004.
- 34) 이효립·박은주(2022).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대학교재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7(1), 59-83. DOI : 10.20437/KOA ECE27-1-03.
- 35) 임영언·임채완(2012). 해외입양 한인 디아스포라: 한국 내 주요 신문보도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0(26), 77-104. UCI : G704-SER000002250.2012.26.004.
- 36) 장창수·배지연(2016). 대전시 입양가족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 37) 전유영·이은영(2012). 유아를 위한 장애 관련 그림책에 포함된 장애에 대한 편견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3(1), 81-106. UCI : G704-001817.2012.13.1.004.
- 38) 정은주(2021a). *그렇게 가족이 된다*. 서울: 민들레출판사.
- 39) 정은주(2021b). 한국, 미디어의 입양에 대한 편견과 대안. 2021년 5월 입양의날 컨퍼런스: 한국사회 입양인식제고와 개선방안 자료집. 21-27.
- 40) 최운선·안재진·변미희·권지성(2019). 국내 입양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아동과권리*, 23(3), 553-578. DOI : 10.21459/kccr.2019.23.3.553.
- 41) 통계청(2008, 2020). *각 년도 사회조사*. 대전 : 통계청.
- 42)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2020).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2021-2022년도 서울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43) 한국유아교육신문(2021.10.21). “복지부, 파양아동 실태 몰라”..고영인 의원 “파양아동 실태 파악 비상”. <http://www.kinde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147>에서 2020.03 인출.
- 44) 현태옥(2004). *공개입양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체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5) Brodzinsky, D. M. & Schechter, M. D.(1993). *Being Adopted*. New York : Anchor Book.
- 46) Brodzinsky, D. M., Smith, W. D. & Brodzinsky, B. A. (1998). *Children's Adjustment to Adoption: Developmental and Clinical Issues*, CA: SAGE Pub.
- 47) Guttman, J. Geva, N. & Gefen, S.(1988). Teachers' and School Children's Stereotypic Perception of "The Child of Divorc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5(4), 555-571.
- 48) Jones, E. & Sparks, D. L.(1992). Meeting the challenge of diversity. *Young Children*, 4, 154-170.
- 49) Kim K. H.(2003). *A Proposal for the Psychological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 in the Unified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41-183.
- 50) Park, S. Y.(2009). *Representations of Transracial Korean Adoption in Children's Literatur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http://hdl.handle.net/2142/81560>.
- 51) Siller, J.(1969). The psychological situation of the disabled with spinal cord injuries. *Rehabilitation Literature*, 30, 290-296.

■ 투 고 일 : 2022년 06월 22일
 ■ 심 사 일 : 2022년 07월 06일
 ■ 게재 확정 일 : 2022년 08월 10일